

한국불교 수계의식의 의미구조와 그 교육적 의의

박 선 영
(동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한국불교 수계의식의 절차와 그 절차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그 수계의식에 내장(內藏)된 의미구조가 인간교육에 어떠한 의의를 주는 것일까 하는 것을 밝혀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토의 대상은 승려인 비구와 비구니가 되기 위한 구족계의 수계의식과 이러한 비구나 비구니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견습승려로서의 사미와 사미니가 되기 위한 수계의식, 그리고 사미니와 비구니의 중간단계로서 비구니가 되기 위한 학습과정에 있는 식차마나가 되기 위한 식차마나의 수계의식,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자(佛子)가 되려는 다시 말해 재가(在家)의 불교신자가 되기 위한 수계의식, 대승의 보살행자(菩薩行者)가 되기 위한 - 승속(僧俗)과 남녀 공통의 - 보살의 수계의식을 그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나 비구니와 사미니의 수계의식은 각각 비구와 사미의 그것에 준하므로 비구와 사미의 수계의식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식차마나의 수계의식 또한 기본적인 절차에 내용도 간단하여 간결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접근은 각 수계의식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과들이 인간교육에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음미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I. 논의의 방향

이 연구는 한국에서 현행되고 있는 불교의례 가운데 수계의식의 절차 안에 함축되어 있는 교육적 의미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에 귀의(歸依)하는 공식

적인 절차는 수계의식(受戒儀式)이다. 따라서 수계의식은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불자(佛子)로서 불법(佛法)을 신봉하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따를 것을 서원(誓願)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계율을 주고 가르치며 입회하여 증명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계(受戒)는 수계(授戒)가 된다. 따라서 수계자(授戒者)의 입장에서는 이 수계의식(受戒儀式)이 바로 수계의식(授戒儀式)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팔호 안에 한자로 계를 주는 사람임을 표현하지 않는 한 수계자는 계를 받는 “수계자(受戒者)”로 할 것이다. 그리고 불교교단에는 불타의 재세시(在世時) 이래 다음과 같은 7중(衆)의 구별이 있어 그 계율과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출가중(出家衆): 비구[比丘: 남자승려], 비구니[比丘尼: 여자승려].

식차마나[式叉摩那: 사미니와 비구니의 중간단계].

사미[沙彌: 견습과정의 남자승려], 사미니[沙彌尼: 견습과정의 여자승려].

※재가중(在家衆): 우바새(優婆塞=清信士: 남자신도), 우바이(優婆夷=清信女: 여자신도).

이 밖에도 재가자(在家者)에게는 8관재계(關齋戒)가 있는가 하면, 남녀노소나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받아 지키는 대승의 보살계가 있다. 이 가운데 8관재계는 동남아의 이른바 소승불교에서는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행해져 왔으나 현대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 수계의례의 절차와 거기에 내재된 의미구조를 통하여 한국불교가 어떠한 의미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불교의 수계의식에는 출가자와 재가자에 따라 달라지는 바, 여기에는 출가하여 비구나 비구니의 승려가 되기 위한 견습승려로서의 사미와 사미니의 수계가 있고, 또 이 단계를 지나 비구와 비구니의 승려가 되기 위해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수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미니와 비구니의 중간단계로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 학습하는 식차마나가 되기 위한 식차마나의 수계가 있다. 이 가운데 사미와 비구의 수계의식만을 검토

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사미니와 비구니의 수계의식은 각각 사미와 비구의 수계 의식에 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구니와 사미니의 계목(戒目)이 비구나 사미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식차마나의 수계의식은 내용도 간결하고 그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성격만 간단하게 요약할 것이다. 재가자의 계는 남녀 공통이며,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계이다. 한국불교에서 이른바 “거사(居士)”는 전통적으로 남자의 재가신자를 뜻하거나, 남녀를 불문하고 그 계를 “거사 5계”라고 통칭해 왔다. 재가자의 계 가운데 또 8관재계(關齋戒)가 있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우 근래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대승계(大乘戒)로서 남녀와 승속의 구별이 없는 보살계가 있다. 따라서 재가자의 수계의식 가운데는 남녀 공통의 거사5계와 보살계의 수계의식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겠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현행하는 한국의 불교 의례집(儀禮集)들을 근거로 그 의례의 절차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그 요약된 내용의 의미구조를 파악하여 음미해 보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례에서 그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단지 문헌을 텍스트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는 한 때 출가자의 생활을 했었고, 대소의 여러 불교의식의 봉행에 직접 참여하여 집전도 적지 않게 해본 경험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그 음미의 과정에서 보다 생생한 감각을 살려 볼까 한다.

II. 출가자의 수계의식

1. 사미 수계의식

※사미니의 수계의식은 이 사미의 수계의식에 준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미와 사미니가 함께 수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미의 수계의식은 안진호(安震湖)의 “석문의범(釋門儀範)”¹⁾에 의거했던 바, 그 절차는 다음과 같

1) 이 “釋門儀範”의 초판은 원래 1931년에法輪社(前 仁商會)에서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설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安震湖, 1966: 下編 123-130). 연구자는 이를 “전통적인 사미 수계의식”이라 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사미 수계의식 절차]: 1)거불(擧佛): “삼보(三寶)”²⁾의 여러 부중(部衆)을 거창(擧唱)하여 이 법회가十方세계(十方世界)의 3보가 광림(光臨)하는 자리가 되게 함/ 2)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十方삼세의 삼보를 널리 청함/ 3)유치, 청사(由致, 請詞): 삼보에 발원하면서 감응과 증명을 해 줄 것을 청함/ 4)향화청, 가영, 고아게(香花請, 歌詠, 故我偈): 향을 사르고 꽃을 올려 삼보를 찬탄하면서 정례(頂禮)함/ 5)현좌진언, 탄백(獻座眞言, 嘆白): 불 보살에게 자리를 봉헌하고, 이 자리에 의해 모두 함께 성불하리라는 찬탄/ 6)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법계”³⁾를 정화하는 진언을 함 / 7)다게(茶偈):十方삼세의 삼보에 차를 올리는 “게송(偈頌)”⁴⁾/ 8)수계자는 불전에 향을 사르고 3배한 후 “호쾌합장(胡跪合掌)”⁵⁾한 가운데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널리 열반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게송/ 9)수계자는 뜰 가운데 향을 사르고 통령전(統領殿)을 향해 3배한 후 호쾌합장한 가운데, 위로는 “사은(四恩)”⁶⁾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악도”⁷⁾의 괴로움을 건져 주고자 출가 수도하려 하

- 2) 불교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를 가장 귀하다는 의미에서 “3보(寶)”라고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불타(佛)와 불교의 가르침인 진리[法] 및 불교의 공동체[僧]를 가리킨다. 여기 “거불”에서 삼보는 공간적으로는 “十方세계(十方世界)”로 표현되는 불교적인 차원에서의 우주 전체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3세(世)”에 걸쳐 충만해 있는 삼보이다.
- 3) 불교에서 “법(法: dharma)”은 존재를 뜻하기도 하고, 불교의 가르침 즉 진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법계는 불교적인 우주인 동시에 수계의식을 거행하는 진리의 도량(道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 4) 게송은 범어 가타(gatha)에서 온 말로, 불타의 공덕을 찬미하거나 교리, 또는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운문. 줄여서 게(偈)라고도 한다.
- 5) 장쾌합장(長跪合掌)이라고도 하는 바, 무릎을 꿇고 무릎팍과 발등이 바닥에 일직선으로 닿게 하고 무릎으로부터 허리 및 머리까지 꿇은 다리와 직각이 되도록 곧게 세운 모습으로 합장한 자세이다.
- 6) 4가지 큰 은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국가, 중생, 삼보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스승, 국가, 시주(施主)의 은혜를 가리키기도 한다.
- 7)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중생의 세계에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 줄여서 수라 -, 인간, 천계의 “6 갈래[六道]”가 있다. 이 가운데 고통의 갈래인 지옥과 기아의 갈래인 아귀(餓鬼) 및 짐승의 갈래인 축생(畜生)이 가장 악업을 많이 지어서 가게 된다는 점에서 3악도(惡道)라고 하며, 때로는 3도(途)라고도 한다.

니 통령(統領)께서는 허락해 달라는 계송/ 10)수계자는 부모 앞에 분향 3배하고 호쾌합장한 가운데 “이제 출가하여 정법(正法)에 들어가 은혜에 진정한 보답을 하리라”는 계송/ 11)수계자는 “속세의 옷을 벗고 먹물의 옷을 입은 후 불전에 3배한 뒤 호쾌합장한 가운데, 출가 수도해서 불도를 흥포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리라는 계송/ 12)수계자는 다시 부모 앞에 분향 3배한 후 호쾌합장한 가운데, “이제 부모를 떠나 해탈을 구하겠다”는 계송/ 13)수계자는 물그릇과 삭도(削刀)를 받들어 들고 수계사(授戒師) 앞으로 감. “집도게(執刀偈).”⁸⁾ 이어서 수계사(授戒師)는 수계자에게 “이제 최후의 머리카락 한 묶음을 제거하리니 허락하겠는가” 하고 세 번 물어, 수계자의 뜻을 세 번 확인함/ 14)법명을 받음. “수계자를 찬탄하는 계송”⁹⁾/ 15)사미는 법복 즉 가사를 받아 정례(頂禮)하고 합장. “법복 찬탄의 계송”¹⁰⁾/ 16)여러 불보살(佛菩薩)과 제천(諸天)을 각각 화상(和尚), 갈마(羯磨), 교수(教授), 증계(證戒)의 아사리(阿闍梨)와 동학(同學)의 반려중(伴侶衆) 및 옹호장엄중(擁護莊嚴衆)의 “육사(六師)”¹¹⁾로 공경하여 청함/ 18)화상은 “사미 10계”¹²⁾의 “계상(戒相)”¹³⁾을 선설(宣說)하

8) “보전(寶殿)의 주인이 일찍이 꿈만 꾸더니, 무명(無明)의 풀이 무성하기 얼마나 오래던가, 이제 금강의 칼날에 떨어져 내리니, 한없는 광명이 온 우주를 비추도다[寶殿主人曾作夢 無明華茂幾多年 今向金剛鋒下落 無限光明照大千].”

9) “훌륭하다 대장부여, 세상의 무상(無常)을 끝내어, 속세를 버리고 열반에 나갈 수 있으니, 드물고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善哉大丈夫 能了世無常 棄俗就尼洹 稀有難思議].”

10) “훌륭하다 해탈의 옷이며, 무상(無上)의 복전의(福田衣)이로다, 내 이제 머리에 받들어 받으니, 세세(世世)에 항상 가피(加被)를 얻으리라[善哉解脫服 無上福田衣 我今頂戴受 世世常得被].”

11) 여기에서 6사 즉 여섯 스승은 직접 계를 주는 스승으로서의 화상, 수계자들에게 지침이 되며 수계의식의 갈마 즉 작법(作法)을 진행하는 스승으로서의 갈마아사리, 수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가르쳐 주는 교수아사리, 이 수계의식이 불교의 율장(律藏)의 규범에 맞도록 엄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공증하는 증계아사리, 함께 같은 불도의 길을 가는 도반(道伴), 이 수계의식의 도량(道場)을 옹호하고 장엄해 줄 여러 천신들을 뜻한다. 이 가운데 “갈마”는 불교의 의식이나 모임에 있어서 율장의 규범에 맞게 하는 작법(作法)이다. 그리고 “아사리”는 간단히 말해서 덕 높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12) [사미 10계의 계목(戒目)]: (1)살생하지 말라, (2)도둑질 말라, (3)사음(邪淫)하지 말라, (4)거짓말 말라, (5)술먹지 말라, (6)높고 넓은 큰 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7)몸에 화만(華鬘)이나 영락으로 장식하거나 향유를 바르지 말라, (8)스스로 가무하거나 이를 일부터 가서 보지도 듣지도 말라, (9)금, 은, 돈, 보배를 지니지 말라, (10)“때 아닐 때[午後]”에 식사하지 말라.

13) 계의 구체적인 실천행위의 모습.

고, 그 하나 하나에 신명을 아끼지 않고 끝내 지키겠는가 하는 것을 수계자에게 세 번씩 물어 세 번씩 확인함/ 19)입지계(立志偈).¹⁴⁾ 이어서 수계자는 삼보에 귀명(歸命)의 예를 하고 계사와 대중에게 3배한 후 호쾌합장한 가운데, “수계자를 찬탄하는 계송.”¹⁵⁾ 수계자 불전에 분향 3배/ 20)“회향(回向)¹⁶⁾의 계.”¹⁷⁾ 수계한 사미를 대중 앞에 얹히고 부모가 사미가 된 아들에게 절을 함. “아들에게 출가를 권한 공덕의 홀륭함을 찬탄하는 계송¹⁸⁾/ 21)불전에 공양하고 계속하여 축원한다.

※사미니계의 수계의식은 사미계의 수계의식과 동일하다. 단, 사미니에게는 사미 10계에 비구니의 비구에 대한 “8경계(敬戒)”와 그리고 8기계(棄戒)가 추가된다. 그 이유는 사미니계는 비구니계의 근본이 되는 바, 이 8경계와 8기계가 비구니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8경계와 8기계를 요약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경계(敬戒)]: “8경법(敬法)”이라고도 하며, 비구니가 비구에게 지켜야 할 8가지 공경해야 할 사항으로 (1)100세의 비구니라도 비록 처음 비구계를 받은 비구라 하더라도 비구에게는 예배하고 자리를 만들어 앉도록 청해야 한다. (2)비구를 꾸지

14) “지금부터 이 몸이 성불하기까지, 이 계를 견지하여 범하지 않겠사오니, 오직 원컨대 제불(諸佛)께서는 증명하시어,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끝내 물러나지 않게 하여지이다[自從今身至佛身 堅持禁戒不發犯 唯願諸佛作證明 寧捨身命終不退].”

15) “위대하다 부처님에게 오게 된 자여, 어떤 사람도 따르지 못할 기쁨일세, 다시 생각하니 이 모임과 더불어, 나는 이제 진리의 이익을 얻었도다[偉哉致佛者 何人不隨喜 復念與時會 我今獲法利].”

16) 불교의 모든 의례나 의식 또는 집회는 다 회향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에서 회향(回向: parīṇāma)이란 “회전취향(回轉趣向)”의 준말로 쉽게 말하면 “방향전환”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의 회향을 불교에서는 자기가 닦은 선근(善根)과 공덕을 다른 중생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성불을 위해서 방향을 돌려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회향의 방향과 그 성질에 대해서는 “박선영, 1998: 95-98” 참고.

17) “상래(上來)로 계법을 닦아, 모두 널리 회향하오니, 공덕이 다 원만해져, 모든 중생 이익 되게 하리라[上來修戒法 皆悉普回向 功德悉圓滿 利益諸含識].”

18) “설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히, 순금의 탑을 만들어도, 아들 하나 출가하도록 권하면, 그 공덕이 저보다 훨씬 홀륭하리라[設滿三千界 造於真金塔 勸一子出家 功德勝於彼].”

람하거나 비방해서는 안된다. (3)비구의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4)식차마나는 이미 6법을 배웠기 때문에 대중스님들을 따라서 비구니의 대계[大戒: 具足戒] 받기를 비구에게 구해야 한다. (5)“승잔(僧殘)”¹⁹⁾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월(半月) 안에 2부(部)의 대중이 있는 곳에서 대중이 있는 가운데 참회해야 한다. (6)반월마다 비구의 대중 가운데서 가르쳐 줄 사람을 구해야 한다. (7)동계(同界) 내에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안거(安居)”²⁰⁾를 하지 못한다. (8)안거를 마치려면 반드시 비구의 대중에게 가서 “자자(自恣)”²¹⁾할 스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T.1428 ‘vol.22’ 四分律48: 992c-923b; 李智冠, 1977: 599-601). ※그러나 이 8경법에 대해서는 불타가 출가공동체에 어떤 잘못이 생기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를 정한 이른바 “수범수제(隨犯隨制)”가 아니고, 불멸(佛滅) 500년경에 부파불교 교단의 보수적 세력들에 의해 기술된 후대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만치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全海住, 1987).

※[8기계(棄戒)]: 비구니의 구족계(具足戒)에 규정된 8바라이(波羅夷)를 말한다. 바라이(波羅夷: parajika)는 “바라이법”이라고도 하며, 단두(斷頭)나 불공주(不共住) 등으로 한역(漢譯)된다. 이 바라이법을 범하면 영원히 비구의 자격이 박탈되고 출가공동체에 추방되는 가장 엄중한 계율이다. 비구의 구족계에서는 성적인 부정행위[邪淫], 도둑질[偷盜], 살생, 거짓말[妄語]의 4바라이법을 규정하고 있다(T.1428 ‘vol.22’ 四分律1-2: 569c-579a; 李智冠, 1976: 57-88). 그러나 비구니에게는 (1)염심(染心) 즉 음심(淫心)으로 남자와 서로 애무함, (2)음심을 지닌 남자와 함께 여덟 가지로 중죄를 범함[8事成重] 즉 “음심을 지닌 남자와 함께 ①서로 손잡거나, ②옷을 잡거나, ③은밀한 곳에 들어가 같이 서거나, ④같이 앉거나, ⑤같이 말하거나, ⑥같이 가거나, ⑦서로 기대거나, ⑧서로 범할 것을 약속함”의 8가지 행위, (3)다른 비구니가 바라이를 범한 것을 알고도 은닉함, (4)대중으로부터 쫓겨난 비구를 추종함

19) 뒤의 “2.비구 수계의식” 첫 “※”에서 “(2)13승가바시사” 참고.

20) 여름의 우기(雨期)나 겨울의 한설(寒雪) 기간에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修行)하는 제도.

21) 안거(安居)의 마지막 날 함께 수행(修行)하던 대중들이 모여서 서로 보고[見], 들으며[聞], 의심한[疑] 일을 가지고 안거 기간에 지은 잘못이나 죄업(罪業)을 지적하고 참회하는 행사.

등 네 가지가 추가된다(T.1428'vol.22' 四分律2222): 714a-718a; 李智冠, 1977: 63-113).

※한편, 근래 조계종에서는 조계종의 대표적인 율사(律師) 일타(一陀)스님이 편역(編譯)한 “수계의범(受戒儀範)”에 의거하여 모든 수계의식을 행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수계의범의 저본은 “동치(同治) 9년 항성(杭城) 해조사(海潮寺) 청도(淸道)의 발문(跋文)이 게재된, 그리고 “소경사(昭慶寺) 혜공경방(慧空經房)에서 인조(印造)”한 “건조 삼단전계정범 초단법의(見祖 三壇傳戒正範 初壇法儀)”, “태산 삼단전계내집(台山 三壇傳戒內集)”, “건조 삼단전계정범 삼단법의(見祖 三壇傳戒正範 三壇法儀)”, “건조 삼단전계정범 홍계비니(見祖 三壇傳戒正範 弘戒毘尼)”의 4책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이 조계종에서 일타스님이 편역한 “수계의범(受戒儀範)”에 의한 수계의식을 “조계종의 개정된 사미 수계의식”이라 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되어 있다(一陀, 1984: 7-46의 初壇傳授沙彌戒正範). 그 대체적인 내용은 요약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실제의 의식에서 행하는 한문의 원문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생략하기로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각주로 제시할 것이다. 한편 사미니의 수계의식은 사미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조계종의 개정된 사미 수계의식 절차]: 1)거향찬(擧香讚): 3보에 찬탄 귀의하여 사미 10계를 받으려고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을 고하고, 천수경의 “웅호도량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송주(誦呪)를 한다/ 2)청성(請聖): 여러 불보살(佛菩薩)과 역대 성현들 및 천계(天界)의 불법을 옹호하는 여러 신들을 향과 꽃으로 청하면서, 이 법좌(法座)에 내려와 자비의 광명으로 이 수계를 증명하고 단(壇)을 감찰하여 호계(護戒)해 줄 것을 간구함/ 3)청사(請師): 계를 줄 스님을 청하는 단계이다. 화상(和尚)이 등단하여 좌정하면, 수계자는 3배하고 “장궤합장(長跪合掌)”²³⁾한다. 화상은 호명하여 수계자의 사자관계(師資關係)와 본사(本師) 및 범명을 점점한 다음 유의 사항을 당부한다. 이어서, 수계자는 화상에게 수계본사(受戒本師)가 되어 “사미 10

22) 여기에서 “T번호”는 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된 문헌의 번호이고, ‘ ’ 안의 “vol.번호”는 이 대장경의 제책순서에 따른 번호이다. 그리고 문헌의 이름 끝에 붙어 있는 숫자는 문헌 안에서 “쑈번호”이며, “a, b, c”는 각각 “상, 중, 하”단을 가리킨다. 위 대장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로도 같다.

23) 앞의 “주 5)” 참고.

계”²⁴⁾를 받게 해 줄 것을 간청한다/ 4)개도(開導): 화상은 이 간청을 수락하고, 법기(法器)를 성취하여 위로는 네 가지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군생의 고통을 제도해야 하며, 출가 후에는 예의가 세속과 달라 국왕이나 부모에게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니 지금 일어나 부모님의 은덕에 1배로써 최후의 절을 하도록 깨우침을 열어 인도한다/ 5)사사군친(辭謝君親): 국가와 부모를 떠나면서 감사의 예를 갖추는 의례인바, 위로는 4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삼도(三途)”²⁵⁾의 고통을 제도하기 위해 출가한다는 것을 고하고, 국가는 이를 허락할 것을 청하여 3배하며, 이제 해탈을 구하고자 출가한다는 것을 부모님께 고하고 3배하며, 출가하여 불법을 배우고 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을 삼보에 고하고 3배한다/ 6)체발(剃髮): 머리를 깎을 깨끗한 물과 삭도(削刀)를 계사에게 봉정하면 계사는 이 물을 세 번 수계자의 머리에 튀겨 뿌린다. 이어서 “집도계(執刀偈)”²⁶⁾를 창한다. 계사는 삭발을 축하 격려하면서 대중과 함께 “계송”²⁷⁾한다/ 7)참회: 다생겁래(多生劫來)의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나무보현보살마하살(南無普賢菩薩摩訶薩)”을 동참한 대중들과 함께 세 번 창(唱)한다. 이와 함께 “연비(燃臂)”²⁸⁾한다/ 8)문난(問難): 수계의 결격사항인 “13중난(13重難)과 16경차(16輕遮)” - 이 사미 수계의식의 절차 다음에 확인할 것이지만 - 에 저촉됨이 없는가를 수계자에게 물어 확인한다. 단, 사미니에게는 “비구니의 8경법(敬法)”²⁹⁾이 추가되며, 이 “8경법을 잘 지키겠는가” 하고 수계자에게 물어 확인한다/ 9)귀의갈마(歸依羯磨): 이미 3보에 참회했고 결격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24) [사미 10계의 계목(戒目)]은 앞의 “주 12)”와 같다.

25) 앞의 “주 7)”의 3악도(惡道)와 같다.

26) 앞의 “주 8)” 집도계와 같다.

27) “수염과 머리카락을 제지했으니,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번뇌를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을 이루게 하여지이다[剃除鬚髮 當願衆生 遠離煩惱 究竟寂滅].”

28) 연비(燃臂)란 수계나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소멸하고자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로, 삼베의 올이나 종이를 꼬아, 여기에 녹인 초를 먹인 심지를 팔에다 세우고 불을 당겨 태우는 절차이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심지 대신 향을 잘라서 불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연비가 지나는 종교적 의의는 천수경(千手經) 가운데 “10악 참회”에 이은 다음과 같은 참회계(懺悔偈)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백천겁 동안 쌓인 죄업, 한 생각에 모두 없어져, 마치 마른 풀 불태워, 다 없어져 흔적도 없는 것과 같다[百劫積集罪 一念頓蕩除 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

29) 앞의 “[전통적인 사미 수계의식 절차]” 다음의 “※[8경계(敬戒)]:” 참고.

이제 상품심(上品心)으로 상품계(上品戒)를 발취해 화상을 따라서 “이 몸이 다하도록 삼보에 귀의한다”고 고하고, 이어서 “저희가 삼보에 귀의하였고, 이제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사오니 ○○스님은 본사(本師)이시고, 여래는 나의 세존이시니 크게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하여 귀의(歸依)의 작법(作法) 즉 의식으로 3배 한 후 다시 일어나 장쾌합장한다/ 10)선설계상(宣說戒相): 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선설(宣說)한다. 그리하여 10계 하나 하나에 대해 잘 지키겠는가 하는 것을 3번씩 물어 3번씩 확인한다/ 11)수착만의(授着縵衣): 수계자는 기립하여 3배하고, 앞으로 5조와 7조의 가사를 갖추 발우를 가지고 스승을 따라 배우도록 가르침을 받고 난 뒤, 먼저 5조가사(縵五衣)를 머리에 이고 대중과 함께 “훌륭하다, 해탈 복이여. 무상(無上)의 만오의(縵五衣)로다. 내 이제 머리에 이어 받으니 세세(世世)에 버리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지이다”³⁰⁾ 라고 창한 다음 입는다. 이어서 7조가사(縵七衣)를 머리에 이고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 입고 3배 한 다음 장쾌합장(長跪合掌)한다/ 12)권계회향(勸戒回向): 사미가 배우고 갖추어야 할 것을 깨우치고 권면(勸勉) 교계(敎誡)한 다음, “이와 같이 가르친 대로 받들어 행하겠는가[依敎奉行]” 하며 물어 확인한다. 화상은 마지막으로 “이 체발(剃髮)하고 수계한 공덕으로, 위로는 사은(四恩)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유(三有)’³¹⁾를 제도하리니 대중은 동음(同音)으로 염불하여 회향합시다”라고 함으로써 마지막의 절차인 “회향”³²⁾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회향의 선언과 함께 사미들은 3배하고 화상은 단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수계자들을 포함하여 동참대중 모두 “서가모니불”을 10번 창념(唱念)하며, 이어서 수계의 공덕을 찬탄하고 “회향계”³³⁾를 송념하는 것으로 수계의식을 끝낸다.

30) “[善哉解脫服 無上縵五衣 我今頂戴受 世世不捨離].”

31)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중생의 세계는 욕심의 세계인 욕계(欲界)와 욕심은 없으나 물질은 존재하는 색계(色界) 및 욕심과 물질 모두가 없는 순수한 정신세계로서의 무색계(無色界)가 있는 바, 이를 삼계(三界) 또는 삼유(三有)라고 한다.

32) 앞의 “주 16)” 참고.

33) “수계의 공덕 훌륭한 행(行), 끝없이 탁월한 복(福) 다 돌리며, 널리 원하옵나니 깊이 빠진 모든 중생, 속히 무량한 광명의 불국토에 가게 하소서.十方세계 모든 부처님과 일체(一切)의 보살마하살들이시어. 마하반야바라밀[受戒功德殊勝行 無邊勝福皆回向 普願沈溺諸衆生 速往無量光佛刹 十方世界一切佛 一切菩薩摩訶薩 摩訶般若波羅蜜].”

한편 위에서 수계 부적격자의 기준으로서 “13중난(13重難)”과 “16경차(16輕遮)”가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서 간단히 그 내용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13중난(重難)]: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는 조건으로 (1)이미 출가하여 불계(佛戒)를 받은 다음 성적 부정이나 살인 또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범한 일이 있다면 이는 불법의 변경 밖으로 밀려난 죄라고 보아 “변죄(邊罪)”라고 하는 바, 이러한 변죄를 범한 자, (2)청정(淸淨)한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는 자, (3)비구계를 설하여 수계하는 것을 도청하고 나도 비구라고 사칭하는 “적주(賊住)”를 한 적이 있는 자, (4)원래 외도(外道)로서 불법에 들어와 불계(佛戒)를 받았던 자가 다시 외도에 나갔다가 또 수계하려는 자, (5)황문(黃門) 즉 성적 불구자, (6)아버지를 살해한 자, (7)어머니를 살해한 자, (8)성자(聖者)인 아라한(阿羅漢)을 살해한 자, (9)파승(破僧) 즉 출가공동체를 분열시킨 적이 있는 자, (10)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이 있는 자, (11)비인(非人) 다시 말해 하늘의 존재나 귀신이 변하여 사람의 모양을 한 자, (12)용이나 짐승이 변하여 사람의 모양을 한 자, (13)이형(二形) 즉 남녀 양성인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T.1428 ‘vol.22’ 四分律35: 814c).

※[16경차(輕遮)]: 16경차(輕遮)는 비구나 비구니가 됨에 부적격한 조건으로 (1)자기의 법명을 모르는 자, (2)화상(和尚)의 법명을 모르는 자, (3)나이 20이 안된 자, (4)“삼의(三衣)”³⁴⁾가 구비되지 않은 자, (5)“발우(鉢盂)”³⁵⁾를 갖추지 못한 자, (6)아버지의 허락을 얻지 못한 자, (7)어머니의 허락을 얻지 못한 자, (8)채무가 있는 자, (9)노예, (10)판리, (11)남자가 아닌 자 - 비구니의 경우 여자가 아닌 자 -, (12)옴병이나 문둥병 환자, (13)창종(瘡腫)이 있는 자, (14)허영계 가루가 쏟아지는 마른 버짐 환자, (15)조갈증 환자, (16)미치광이 간질병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T.1428 ‘vol.22’ 四分律35: 814c-816c).

34) 비구가 입는 세 가지 옷으로, (1)마을이나 궁중에 들어갈 때에 입는 9조(條)의 “승가리(僧伽梨: 大衣), (2)예불이나 독경 등 불교의례를 할 때 입는 7조 이상의 가사로서 울다라승(鬱多羅僧: 上衣), (3)절에서 작업을 할 때나 상(床)에 누울 때 입는 5조(條)로 만든 가사인 “안타회(安陀會)”의 세 가지를 말한다.

35) 불교의 승려들이 공양 즉 식사할 때 사용하는 식기.

2. 비구 수계의식

※ 비구와 비구니의 계를 “열반에 가까운 조건을 잘 갖춘 계(戒)”라는 의미에서 구족계(具足戒)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계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불법을 닦는 수행자인 동시에 불법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이며, 세속 재가불자들의 공경과 공양을 받는 복전(福田)인 승려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석존의 즉 석가세존의 초기교단에서 처음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출가하겠다고 하는 경우 석존이 “잘 왔습니다[善來]”라 하고 하면 그것으로 비구가 되었다. 이른바 “선래비구(善來比丘)”라는 말은 이러한 사정을 잘 증언한다 하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타인 석존(釋尊)과 그 불타의 가르침인 법(法: dharma. 達磨), 그리고 출가공동체인 “승가(僧伽: saṃgha)”에 귀의하겠다는 서약으로, 다시 말해 이른바 3 귀의(歸依)의 서약으로 비구가 되었다. 그러나 출가공동체가 커지면서 점차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잘못이 발생하게 되어 그때마다 계를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교의 여러 계는 모두 수도와 전도 및 재가자의 공양, 기타 공동생활에서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라 제정한 이른바 “수범수계(隨範隨制)”의 규범이다. 비구의 구족계는 (1)4바라이, (2)13승가바시사, (3)2부정, (4)30니살기바일제, (5)90바일제, (6)4바라제제사니, (7)100식차가라니, (8)7멸쟁의 총 8 범주 250계로 되어 있다. 간단하게나마 이 8범주 각각의 성격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1) 4바라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³⁶⁾ (2) 13“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saṃghavaśeṣa)”에서 승가바시사는 승잔(僧殘)으로 한역(漢譯)되며, 자위행위나 여인의 애무 등에 대한 13가지의 계가 있다. 이는 4바라이 다음가는 무거운 범계(犯戒)이다. 그러나 영구히 비구의 자격을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4바라이와는 달리 20명 이상의 비구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진심으로 참회하여 허락을 얻으면 비구의 자격은 유지된다(T.1428 ‘vol.22’ 四分律2-5: 579a-600b; 李智冠, 1976: 89-118). (3) 2“부정법(不定)”은 으스스한 곳에서의 행위나 노지(露地)라 하더라도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의 사건으로 범계 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 자백하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격

36) 앞의 “[전통적인 사미 수계의식 절차]” 다음의 “※[8경계(敬戒)]:”에 이은 “※[8기계(棄戒)]:” 참고

자의 증언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2가지 계가 제시되어 있다(T.1428 'vol.22' 四分律5: 600b-601b; 李智冠, 1976: 119-122). (4) 30“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naihsargika-pāyattika')”에서 니살기바일제는 사타(捨墮)로 한역된다. 주로 옷이나 공양, 그릇, 약품 등 물건 때문에 잘못을 범한 것인 바, 이는 물건을 비구들의 공동체에 내 놓고 참회해서 탐욕을 버리게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옷을 오랜 기간 지니는 행위 등 30가지가 있다(T.1428 'vol.22' 四分律6-10: 601c-633c; 李智冠, 1976: 123-166). (5) 90“바일제(波逸提. pāyattika)”에서 바일제는 타(墮) 또는 단타(單墮)나 단제(單提)로 한역된다. 니살기바일제가 주로 물건을 둘러싸고 야기된 잘못이지만, 이 바일제는 물건과는 관계가 없는 언어나 행동 또는 용심(用心)이나 생활규범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계이다. 여기에는 남을 헐뜯거나 이간질 또는 여인과 한 방에서 자는 등 90가지가 있는 바, 다른 사람에게 참회하면 된다(T.1428 'vol.22' 四分律11-19: 634a-695c; 李智冠, 1976: 167-264). (6) 4바라제제사니(波羅提舍尼. pratideśaniya)에서 바라제제사니는 향피회(向彼悔), 대타설(對他說) 등으로 한역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범행은 모두 공양(供養)을 받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바라제제사니에는 마을 집에 있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밥을 받는 행위 등 4가지가 있으며, 범했을 경우 한 다른 비구에게 참회하면 된다(T.1428 'vol.22' 四分律19: 695c-698a; 李智冠, 1976: 265-272). (7) 100“식차가라니(式叉迦羅尼. sikhakaraniya)”에서 식차가라니는 응당학(應當學), 수계(守戒) 등으로 한역된다. 다른 계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잘못으로, 비록 범했더라도 마음으로 참회하고 잘 배울 것을 다짐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00가지가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10종류가 된다. 즉, 착의(着衣), 입촌(入村), 좌기(坐起), 식사, 절식과 식사 때 사용하는 그릇의 간수[護鉢], 대소변, 설법, 불탑(佛塔), 행각(行脚) 즉 여행, 나무에 오르되 한 길 이상 오르는 것 등이다(T.1428 'vol.22' 四分律19-21: 698a-713c; 李智冠, 1976: 273-356). (8) 7멸쟁(滅靜)은 공동체에서 시비와 논란이 야기되면 이를 깨끗하게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7가지가 제시되어 있다(T.1428 'vol.22' 四分律21: 713c; 李智冠, 1976: 357-365).

비구의 수계를 위해서는 우선 계장(戒場)을 정한 다음 “대계(大界)”³⁷⁾를 정하며,

37) 계를 받는 장소인 계장(戒場)을 소계(小界)라 한다면, 대계는 계장이 있는 어느 산중이나 사찰의 도량 내지 어느 교구가 될 것이다.

그 계장 안에 계단(戒壇)을 세우고 그 위에 “3사7증(3師7證)”이라 하여 제1위(第1位)의 구족계화상(具足戒和尚) 즉 전계화상(傳戒和尚), 제2위의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 즉 작법아사리(作法阿闍梨), 제3위의 교수아사리(教授阿闍梨), 제4위에서부터 제10위까지의 존증아사리(尊證阿闍梨)로 구성되는 10사(師)의 자리를 마련한다. 단(壇) 아래의 정중(正中)에 향안(香案)을 준비하여 초를 밝히고 향을 살라 올린다. 아직 비구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함께 듣지 못하며, 또 “은밀한 곳[屏處]”에 문난(問難)하는 자리 즉 문소(問所)를 마련해야 한다(一陀, 1984: 53). 절차는 14단계로 되어 있는 바, 각 단계의 의식은 매우 엄정하고 또 복잡하여 간단히 소개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一陀, 1984: 53-104의 二壇傳受比丘戒正範).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단계의 명칭을 열거하고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절차]: 1) 명청사(明請師): 수계의식의 안내를 담당한 인례사(引禮師)가 수계자들에게 “삼사칠증(三師七證)”³⁸⁾의 율사(律師)가 누구인가를 밝혀 줌/ 2) 정청사(正請師): 이 율사들을 갈마 즉 작법(作法)을 갖추어서 바르게 청함/ 3) 청성삼보(請聖三寶): 성스러운 “삼보”³⁹⁾를 청함/ 4) 단주백(壇主白): 제1사(師)인 계단의 주관자가 다른 9사(師)들에게 작법(作法)의 절차진행에 대한 의도를 아뢰어 동의를 구한 뒤, 10사는 “화합계(和合偈)”⁴⁰⁾를 창(唱)함/ 5) 차교수(差教授): 갈마의 작법으로 교수사(教授師)를 파견하여 “문난(問難)”⁴¹⁾을 다루게 함/ 6) 출중문난(出衆問難): 교수사가 대중에서 나와 병처(屏處) 즉 “은밀한 곳”의 문소(問所)에 가서,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사미들에게 비구로서의 결격사항인 “13중난(13重難)과 16경차(16輕遮

38) 비구와 비구니의 구족계는 변방의 외진 국가가 아닌 한 반드시 수계의식의 주관자로서 계를 주는 구족계 화상(和尚), 수계자들에게 지침이 되며 갈마(羯磨) 즉 작법(作法)을 주관하는 갈마 아사리, 수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계자들에게 교수(教授)하는 교수 아사리로 구성된 덕 높은 세분의 율사(律師) 즉 3사(師)를 모셔야 한다. 또한 일곱 분의 덕 높은 율사들을 모셔 이 수계의식이 율장(律藏)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증명하는 존증(尊證) 아사리를 모셔야 한다. 줄여서 화상, 갈마사(羯磨師) 또는 작법사(作法師), 교수사(教授師)의 3사와 7인의 증사(證師)로 구성된 삼사칠증(三師七證)의 10사(師)를 모셔야 한다.

39) 앞의 “주 2)” 참고.

40) “지계(持戒)의 청정함은 보름달 같고, 몸과 입 회고 깨끗해 티도 더러움도 없다. 대중이 화합함에 의심도 논쟁도 없으니, 이로써 계를 줄 수 있게 되었도다[持戒清淨如滿月 身口皎潔無瑕穢 大眾和合無疑諍 是乃可得同授戒].”

41) 앞서의 “[1.조계종의 개정된 사미 수계의식 절차]” 가운데 “8)문난(問難)” 참고.

)”⁴²⁾의 하나 하나에 대해 물어 확인함/ 7) 입중결계(入衆乞戒): 교수사가 대중에게 돌아 와 문난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계자들과 함께 구족계를 줄 것을 간청함/ 8) 작법사단백(作法師單白): 갈마사가 다시 말해 작법사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아뢰고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를 물어 원만하게 되었음을 7중사(證師)에게 확인함/ 9) 정문난(正問難): 갈마사가 다시 공개적으로 비구로서의 결격사항이 없나를 물어 확인함/ 10) 명수계체(明授戒體): 제1사인 화상이 “계체(戒體)”⁴³⁾를 밝히고 상품심(上品心)을 내어 받아들이도록 하며, 갈마사가 구족계를 주겠다는 것을 한 번 아뢰고 다시 세 번의 갈마작법으로 수계(授戒)의 가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을 고지(告知)함/ 11) 정수계체(正授戒體): 갈마사가 사미들에게 모든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졌으니 계법(戒法)을 베풀어 원종계체(圓宗戒體)를 감발(感發)하게 하도록 네 번 아뢰고, 그때마다 7중사는 원만하게 “되었음”을 확인함/ 12) 차설사타(次說四墮): 화상은 “4바라이법(4波羅夷法)”⁴⁴⁾을 차례로 하나 하나 교설하고 그 때마다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지 않고 지킬 것인가를 물어 확인함/ 13) 후수사의(後授四依): 비구는 “분소의(糞掃衣)”⁴⁵⁾를 입고, 결식을 하며, 나무 아래 정좌하며, 부란약(腐爛藥)을 쓰면서 살아가라고 하며 이를 지키겠느냐고 물어 확인함/ 14) 결권회향(結勸回向): 율장(律藏)의 규범에 따라 원만하게 수계했으므로 이제 교법을 잘 받아서 널리 권화(勸化)하여 복된 일을 많이 하고 삼보에 공양하며, 성현의 행과(行果)를 증득(證得)한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으리라고 권면하고 격려한 다음, 대중 모두와 함께 “회향계”⁴⁶⁾를 동음(同音)으로 창하여 마친다.

※한편 비구니의 수계의식은 비구의 수계의식에 준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비구니의 절차에는 비구의 수계의식의 절차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42) 앞의 “[조계종의 개정된 사미 수계의식 절차]” 다음의 “※[13중난(重難)]:”과 “※[16경차(輕遮)]:” 참고.

43) 잘못된 일을 막고 나쁜 것을 그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계(戒)의 본체.

44) 앞의 “주 36)” 참고.

45) 세간의 사람들이 버린 헛 옷으로 주어다 빨아서 만든 가사인 바, 이 버린 옷은 똥을 닦은 형겅과 같은 것이기에 분소의(糞掃衣)라 하며, 또 이 헛 옷의 조각 조각을 모아 기어서 만든 옷이기에 납의(納衣)라고도 한다.

46) 앞의 “주 33)”과 같음.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계목(戒目)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구의 구족계는 (1) 4바라이, (2) 13승가바시사, (3) 2부정, (4) 30니살기바일제, (5) 90바일제, (6) 4바일제제사니, (7) 100식차가라니, (8) 7멸쟁의 총 8범주 250계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비구니의 구족계는 비구계 가운데 “(3) 2부정”이 없는 (1) 8바라이, (2) 17승가바시사, (3) 30니살기바일제, (4) 178바일제, (5) 8바일제제사니, (6) 100식차가라니, (7) 7멸쟁의 총 7범주 348계로 되어 있다(李智冠, 1977). 이 비구니계 7범주의 성격은 비구계 8범주 가운데 “(3) 2부정(不定)”을 제외한 동일한 명칭의 범주와 각각 같은 성격의 것이다(T.1428 ‘vol.22’ 四分律22-30: 714a-778b). 그러나 이 구체적인 계목의 수를 가지고 출가자의 계율에 남녀의 성차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러한가. 이들의 구족계는, 이미 언급했듯이, 모두 수도와 전도 및 재가자의 공양, 기타 공동생활들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라 제정한 이른바 “수범수제(隨範隨制)”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단 이는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와 문화풍토에서 여성으로서 출가하여 수도한다는 것은 그토록 시비가 많이 일어날 만큼 실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 이 문제는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겠으나 - 하는 추측은 해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시점을 달리하여, “식차마나”는 이미 언급했듯이 사미니와 비구니의 중간단계로서 비구니계를 받기 위한 준비의 학습을 하는 출가자이다. 따라서 식차마나의 수계는 이러한 식차마나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이다. 그 수계의 절차는 수계 의식에서 공통되는 기본적인 절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간결하고 소박하다 할 수 있다. 계의 내용은 성행위, 도둑질, 살생, 거짓말, “때아닌 때[非時食]의 즉 오후”의 식사, 음주 등 6가지의 금지를 규정하는 이른바 “6법”이다. 뿐만 아니라 비구니의 8바라이를 위시한 계법(戒法)과 위의(威儀) 및 모든 행법(行法)과 법도를 익혀야 한다(一陀, 1984: 109-125의 授式叉摩那六戒正範).

III. 재가자의 수계의식

※세속의 가정생활을 하는 남자신자(優婆塞=清信士)와 여자신자(優婆夷=清信女)

두 부류의 불자(佛子)들은 불교교단의 재가2중(在家2衆)이다. 이들은 불교에 있어서 모든 계의 기본이 되는 살생, 도둑질, 부정한 성행위, 거짓말, 음주의 다섯 가지 금지를 범하지 말라는 5계를 받아 지킴으로써 공식적으로 정식의 불자(佛子)가 된다. 그 수계절차는 얼마 전까지의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으나(安震湖, 1966: 下編의 131-132), 근래 조계종에서는 일타(一陀)스님이 새로 편찬 번역한 “수계의범(受戒儀範)”에 의해 행하고 있다. 태고종에서는 전자의 전통적인 의식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결국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전자에서는 “거사오계(居士五戒)”로, 그리고 후자에서는 “수거가이중오계(授居家二衆五戒)”로 표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를 근거로 하되(一陀, 1984: 283-300의 授居家二衆五戒正範), 그 명칭은 “거사 수계의식(居士 受戒儀式)”으로 하겠다. 후자의 표현은 한국 불교계의 일상용어로서는 아직 생경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절차]: 1)거향찬(擧香讚): 수계자들이 향을 피워 올리고 삼보에 귀의하여 5계를 받고자 정례(頂禮)한다. 이어서 “대비주(大悲呪)”⁴⁷⁾나 반야심경을 1편 독송한다/ 2)청성(請聖): 향과 꽃으로 영접하고 부처님들과 대소승(大小乘) 율장과 경전들, 여러 보살 및 역대의 여러 율사들, 그리고 여러 호법천신(護法天神)과 선신들을 청하여 수계를 증명하고 계단을 감찰하여 호계(護戒)해 줄 것을 청한다/ 3)청사(請師): 5계를 받기 위해 계사(戒師)를 간곡히 청하는 의례이다/ 4)개도(開導): 계사가 되어 주기를 허락한 대덕(大德)은, 계를 받는 것은 불계(佛階)에 오르는 사다리이고 생사의 긴 밤의 등불이며, 고해를 건너는 배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살생, 도둑질[偷盜], 부정한 성행위[邪淫], 거짓말[妄語], 음주 이 다섯 가지를 하지 말 것을 선설(宣說)함/ 5)참회: 무시겁래(無始劫來) 악업의 참회를 고하고 “연비(燃臂)”⁴⁸⁾하며 참회진언 독송/ 6)귀의(歸依): 삼보에 귀의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원(誓願)하게 함/ 7)선계(宣戒): 5계의 “계상(戒相)”⁴⁹⁾을 하나하나 선설(宣說)하고 신명이 다하도록 “지키겠느냐” 물어 확인한다/ 8)발원(發願): 3귀의계(歸依戒)와 5계를 받은 공덕으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보리심

47) 천수경(千手經)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말하며, “천수관음(千手觀音)의 주문(呪文)”이라고도 한다.

48) 앞의 “주 28)” 참고.

49) 앞의 “주 13)”과 같음.

(菩提心)⁵⁰⁾을 내어 해탈하게 할 것을 서원(誓願)하게 함/ 9)회향(回向): 계첩(戒牒)을 주고, 수계의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되돌려 동원종지(同圓種智)를 성취하리라고 격려한 후 대중 모두와 함께 “회향계”⁵¹⁾를 창함.

IV. 남녀와 승속 공통의 보살계 수계의식

※보살계의 수계의식은, 출가와 재가 및 남녀를 막론하고, 깨달음을 통해 성불할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의 보살이 되기 위한 수계의식이다. 이러한 보살이 지켜야 할 계는 “10중대계(重大戒)” 다시 말해 범할 경우 중대한 죄악이 되는 10가지 계와, “48경구(輕垢)” 즉 비교적 가벼운 범행이 되는 48가지의 계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10중대계”는 “10중금계(重禁戒)”라고도 하거니와, (1) 살생하지 말라, (2) 도둑질 말라, (3) 부정한 성행위 하지 말라, (4) 거짓말 말라, (5) 술 팔지 말라, (6) 교단을 헐뜯지 말라, (7) 자신을 칭찬하면서 남을 비난하지 말라, (8) 자기의 것은 아끼고 남을 욕하지 말라, (9) 성내지 말고 참회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라, (10) 3보를 비방하지 말라 등이다. 그리고 “48경구”는 “48경계(輕戒)”라고도 하는 바,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계를 범한 이를 참회하게 하라 등 48가지이다. 그 수계절차를 다음에 간단히 요약한다(一陀, 1984: 237-278의 三壇傳授菩薩戒正範).

[절차]: 1) 거향찬(舉香讚): 종을 울리고 향을 피워十方(十方)의 모든 불보살(佛菩薩)이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일동 대비주(大悲呪)를 독송한다/ 2) 예경삼보(禮敬三寶): 일동 3세(世)의 모든 부처님과 존법(尊法) 및 현성승(賢聖僧)에게 동성동예(同聲同禮)로 일심정례(一心頂禮)한다. 법사 등단하고 수계자 “호쾌합장(胡跪合掌)”⁵²⁾한다/ 3) 정청사(正請師): 수계자들은 법사의 인도로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을

50) 여기에서 “보리(菩提)”는 지혜(智慧), 진리[道], 깨달음[覺]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리심 즉 “보리의 마음”은 진리를 구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하겠다.

51) 앞의 “주 46)”과 같음.

52) 앞의 “주 23)” 참고.

수 있도록 대덕(大德)에게 수계사(授戒師)가 되어 주기를 간청한다. 이에 화상은 허락하고, “보리심(菩提心)을 냈는가, ‘7역죄(逆罪)’⁵³⁾를 범한 적이 없는가”⁵⁴⁾에 대해 수계자들에게 물어 확인한다. 이어서 어떤 악도 짓지 않으려는 섭율의계(攝律儀戒)와 선행은 모두 행하려 하는 섭선법계(攝善法戒)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섭중생계(攝衆生戒)의 3취정계(聚淨戒)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보살이 배웠고 배우며 배우려니와, 과연 이를 받겠는가 하고 물어 확인한 다음 편안히 앉게 한다/ 4) 개도계(開導戒): 화상이 보살계의 탁월한 공덕들을 널리 깨우쳐 훌륭한 “보살행자(菩薩行者)”가 되도록 인도한다/ 5) 명청성(明請聖): 호쾌합장하고 시방의 허공에 내집(來集)한 모든 3보 및 여러 천신(天神)과 호법선신(護法善神)들을 일심으로 청하여 청정(淸淨)한 보살이 될 수 있도록 애민(愛愍)해 줄 것을 간청한다/ 6) 4불괴신(不壞信): 화상은, 불·법·승·보살계의 네 가지는 미래가 다하도록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으로, 삼보에 귀의하여 이 청정계(淸淨戒)를 받아 수행에 힘써 무상(無上)의 불과(佛果)를 성취할 것을 깨우친다. 이어서 이 4신(信)에 영원히 귀의할 것을 모든 불보살(佛菩薩) 앞에 서원(誓願)하게 한다/ 7) 참회과(懺悔過): 화상은 무시겁래(無始劫來)의 모든 과업(過業)을 발로참회(發露懺悔)하여 보리심을 내도록 한다. 이어서 참회진언(懺悔眞言)을 하면서 “연비(燃臂)”⁵⁵⁾한다/ 8) 명발원(明發願): 화상은 “14발원”⁵⁶⁾을 하도록 하고, 그 하나 하나의 발원을 미래가 다하도록 영원히 견지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물어 확인한다/ 9) 계백걸계(啓白乞戒): 시방(十方)의 모든 불 보살과 여러 선신들에게 이제 보리심을 내어 원하오니 애민(愛愍)하시어 보

53) ①악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냄, ②아버지를 살해함, ③어머니를 살해함, ④화상을 살해함, ⑤아사리(阿闍梨)를 살해함, ⑥갈마(羯磨)로 불법을 전하는 스님을 살해함, ⑦성인(聖人)을 살해함.

54) 보살계의 수계는 보리심을 내고, 그리고 7역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을 자격조건으로 한다.

55) 앞의 “주 28)”와 같음.

56) 이 14발원은 (1)부처님을 생각하고 선지식(善知識)을 친근(親近)히 함, (2)악지식(惡知識)을 멀리 함, (3)신명을 버릴지언정 계를 범하지 않음, (4)대승의 경을 독송하고 깊은 뜻을 물음, (5)무상의 보리심에 신심을 냄, (6)중생의 고통을 구호함, (7)삼보에 공양함, (8)부모에 효순하고 스승에 공경 숭사(承師)함, (9)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불도를 구함, (10)눈 귀 코 혀 몸의 5진경(塵境)에서 모든 번뇌를 제어함, (11)끝 없는 중생들을 제도함, (12)다함 없는 번뇌를 끊음, (13)한 없는 법문을 배움, (14)위 없는 불도를 이룸.

살계를 배풀어 줄 것을 아뢰어 3회 간청한다/ 10) 수계갈마(授戒羯磨): “너희들이 이제 보살계를 받으려 하니 곧 3취정계(聚淨戒)이다. 이것은 모든 불 보살의 행하신 길이니 미래 모든 보살이 이제 받아 배워서 알고 행해 머지 않아 성불할 것이다”를 3번 창하므로써 보살계를 주는 갈마, 다시 말해 의식(儀式)의 작법(作法)을 행함/ 11) 선계상(宣戒相): “계상(戒相)”⁵⁷⁾을 선설(宣說)한다. 현재의 몸으로 불신(佛身)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10중대계(重大戒)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고 수계자들에게 계목(戒目) 하나 하나에 대해 물어 지키겠다는 확약을 받는다/ 12) 결찬공덕(結讚功德): 위의 10중대계를 지키면 그 공덕으로 큰 총명을 얻고 “일체종지(一切種智)”⁵⁸⁾를 얻어 성불하리라고 결론적인 찬탄을 한다/ 13) 계백작증(啓白作證): 화상의 인도로 보살계를 엄정하고 원만하게 받았다는 것을十方의 모든 불 보살에게 아뢰어 고하고 증명해 주기를 청하는 의례이다/ 14) 찬서(讚瑞) 및 회향: 화상은 보살계를 수계하고 불 보살들에게 증명까지 받았으니 여러 가지로 상서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찬탄하며, “모든 범성(凡聖)의 보살계가 다 마음으로 근본(體)을 삼으며, 마음이 무진(無盡)하므로 계법(戒法)도 또한 무진하다”고 일깨운다. 더욱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시방법계(十方法界)의 모든 중생들에게 그 공덕을 회향하여 다 불도를 함께 이룩할 것을 권면하고, 모두 꿇어앉아 “회향의 발원”을 하게 한 다음 계첩(戒牒)을 수여하고 “회향계”⁵⁹⁾를 창(唱)한다.

V. 수계의식의 절차와 그 교육적 의미 함축

- 결론에 대신하여 -

여러 수계의식에서는 그 나름의 공통된 진행의 과정 내지 절차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수계의식이 시방삼세(十方三世)의 불 보살과 불법옹호의 여러 천신과 선신들을 청하여 정례(頂禮)하는 의례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수계의식을 증명하고

57) 앞의 “주 13)” 참고.

58)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일이나 물건이건 아니면 관념적인 것이건 모든 사물에 대해 낱알이 정밀하게 아는 지혜.

59) 앞의 “주 51)”과 같음.

호계(護戒)하여 주기를 기원하면서 시방삼세의 불 보살과 여러 호법성중(護法聖衆)을 청하는 청성(請聖)으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비구의 수계의식에서는 이 청성(請聖)의 앞에 삼사칠증(三師七證)의 계사(戒師)가 누구인가를 사전에 수계자들에게 알려주는 명청사(明請師)와 계를 줄 계사(戒師)들을 울장의 규범에 따라 바르게 청하는 정청사(正請師)의 단계가 있다. 그러나 처음의 이 2단계는 정식의 수계의식을 하기에 앞서 사전의 준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구의 수계의식은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친 다음에 청성삼보(請聖三寶)의 이름으로 청성(請聖)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다음, 계를 줄 화상을 청하여 계를 줄 것을 간청하는 청사(請師)와 결계(乞戒)의 의례가 이어진다. 이에 이어 울사는 수계의 의의와 유의사항을 깨우치는 개도(開導)의 단계를 거쳐, 계상(戒相)을 선설(宣說)하고 계를 주는 선계(宣戒)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미계의 경우에는 국가와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출가 수도하여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고하고 허락할 것을 청하며 각각 3배씩 하고, 아울러 불법을 배우고 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염원을 삼보에 고하고 3배하는 사사군친(辭謝君親)과 이에 이은 삭발의 체발(剃髮) 의례를 밟는다. 뿐만 아니라 다생겁래(多生劫來)의 죄업을 참회하고 연비(燃臂)하는 참회(懺悔)와 수계자에게 결격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난(問難)의 과정이 있다. 이 문난은 비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계(宣戒)의 과정 이전에 있다. 그러나 참회의 과정이 거사의 경우에는 선계(宣戒) 이후에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은 다음 발원과 회향을 통해 수계의식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불교의 수계의식은 청성(請聖)과 청사(請師) 그리고 결계(乞戒)에 이어 개도(開導)와 문난(問難)을 거쳐서 수계(受戒)하며, 발원(發願)과 회향(回向)으로 끝난다 하겠다. 단, 개도(開導)의 경우 어떤 계를 받는 수계의식이냐에 따라 그 개도의 내용이, 물론 크게 보면 다 계를 잘 지켜 진정한 불자로서 자신을 완성하고 중생을 널리 구제하라는 것이지만,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미니 사미니가 승려인 비구나 비구니가 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의 견습승려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미계나 사미니의 수계의식은 출가하여 승려생활에 들어가기 위해 최초로 승려생활의 장(場)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의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구계나 비구니계의 수계의식은 이 문안에 들어가는 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세속을 떠나 출가자의 첫발을 내딛는 사미에게 출가자는 부모와

국왕에게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국왕 -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 에 감사하고 절을 하도록 개도하고 있다.⁶⁰⁾

한편, 비구계나 비구니계의 수계의식에서는 다른 수계의식과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주로 갈마 즉 의식(儀式)의 작법(作法)에서 나타난다. 불교에 여러 수계의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수계의식은 서가모니불 재세시(在世時)의 초기불교 이래 가장 엄정하게 율장의 규범에 따라 시행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석존 재세시부터 승가에는 대소의 모든 일이 공동의 논의와 동의 를 거쳐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석존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모든 불교교단에 계승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대중공사나 산중공사는 바로 그 실례(實例)이다. 비구계나 비구니계의 수계의식에는 전계(傳戒), 교수(教授), 갈마(羯磨=作法)의 3사(師)와 이 수계의식을 감찰하고 증명하는 7증사(證師)의 이른바 “삼사칠증(三師七證)”의 제도가 있는 것도 석존 재세 이래의 규정인 바, 이 또한 승가의 이러한 정신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의식의 주관자인 전계화상(傳戒和尚)은 수계의식의 공식석상에서 수계의 작법절차 진행 의도를 다른 9사들에게 동의 받고 화합계(和合偈)를 함께 창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공공적인 수계의식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묻고 확인하며 보고하고 동의되어서 진행된다. 이 점이야말로 불교의 수계의식이 지니는 독특한 종교문화라 할 것이다.

불교의 수계의식에서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항상 단계에 따라, 그리고 중요한 대목마다 찬탄과 격려가 있고, 이 찬탄과 격려는 아름다운 운문의 계송으로 창(唱)되고 있다. 물론 불타의 재세시(在世時) 이래 불교의 가르침에는 항상 한 대목이 끝날 때나 중요한 대목마다 그 내용을 총괄하고 강조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계송이 자주 등장하고 있거니와, 이는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각인 시키고 내면화하게 하며, 분발하고 다짐하여 용맹정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수계의식에서 이 수계의 의의와 목적이 자신을 완성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구두로 깨우치면서, 이를 찬탄과 발원의 형식을 빌려 계송으로 함께 창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기능을 지니는 것이다. 뿐만 아니

60)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사미 수계의식]”에서는 “회향계” 이후 수제한 사미를 대중 앞에 정좌하도록 하고 부모가 아들 사미에게 큰절을 하도록 되어 있다(安震湖, 1972: 下編, 129).

라,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수계의식은 그 자체가 불교적인 새로운 삶 내지 문화의 장으로 들어가는 입문의 의식이기도 하다. 그 삶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행과 구제이다. 이제까지의 쾌락과 자기중심의 삶으로부터 청정과 이타의 삶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전환의 공덕을 시방삼세의 모든 생명체에 되돌리는 마지막의 회향 속에서 수계자 개개인의 전환은 우주와 함께 공유되게 된다.

이와 같은 불교의 수계의식에서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선 주목되는 것은 “시방삼세(十方三世)”라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시방이란 동서남북의 4방과 그 동서남북 사이의 네 간방(間方) 및 상방(上方)과 하방(下方)을 뜻한다. 결국 전(全) 우주적 차원의 무한한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세(三世)는 과거세(過去世)와 현재세(現在世) 및 미래세(未來世)를 뜻하는 바, 시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한다. 무한성과 영원성이야말로 종교가 지니는 본질적인 성격이거니와, 오늘날 학교교육은 너무나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게 함으로써 상상과 창의력, 그리고 제약 없는 사고의 자유를 충분하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이런 견해는 하나의 특정한 종교인 불교의 세계관을 학교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교육을 통해 인간을 항상 현실에서의 공리적(功利的)인 사고에만 맴돌도록 하는 편협성과 왜소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보다 넓고 무한하며 영원한 것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교육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한다. 종교가 진정 인간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성의 형성에 있다 하겠으며, 여기에서 종교성이란 바로 이 영원성과 무한성의 사고와 정조(情操)이며 자세이고 실천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교육이며 학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불교의 수계의식에서는 삶의 목적이 현실에서의 공리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통한 자신의 완성과 함께 모든 존재의 제도(濟度)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항상 모든 공덕을 이와 같은 자기완성과 중생구제를 위해 회향(回向) 즉 전환한다. 그리하여 전 우주와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원성과 무한성은 단순한 관념이나 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염원으로 내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은 운문의 아름다운 계송(偈頌)을 창념(唱念)함에 의해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종교적 수계는 하나의 실존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세계로 전환한다. 이제는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존재방식을 드러내고 또한 구현해 간다. 그 계기는 “불법(佛法)의 만남”이다. 일찍이 독일의 볼노브(Bollnow, O. F.)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Begegnung geht vor Bildung)”는 유명한 명제를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만남은 단순한 접촉과는 전연 다르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진실한 존재방식이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불법의 만남은 그 자체가 나의 진정한 존재방식이 드러남이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진정한 구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T.1428(vol.22) 四分律.

見祖 三壇傳戒正範 初壇法儀.

見祖 三壇傳戒正範 三壇法儀).

見祖 三壇傳戒正範 弘戒毘尼.

台山 三壇傳戒內集.

박선영(1998).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기획단 편.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자료 제1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安震湖(1966). 釋門儀範. 서울: 佛書普及社.

李智冠(1976). 南北傳六部 律藏比較研究. 서울: 大覺會出版部.

李智冠(1977). 比丘尼戒律研究. 서울: 大覺出版會.

一陀 編譯(1984重刊). 受戒儀範. 경남 합천: 海印寺出版部.

全海住(1986). 比丘尼教團의 成立에 대한 考察 - 比丘尼八敬戒를 中心으로 -. 韓國佛敎學, 11. 서울: 韓國佛敎學會.

Bollnow, O. F.(1959).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